

광주, 상승세 몰아 연승 'Go~ Go~'

오늘 저녁 홈에서 수원FC전
인천전 '역전승 기운' 연장 의지
12승4무5패 상대 전적도 압도
김호영 감독 "인천-수원-성남
팀 방향 결정할 중요한 경기"



전용구장 '첫승' 갑증을
푼 광주FC가 시즌 첫 연승
에 도전한다.

광주는 7일 오후 7시 30
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K리그
1 2021 8라운드 홈 경기를 벌인다.

광주는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안방에서
연승을 노린다.

지난 7라운드 광주축구전용구장은 '광주 극
장'이었다.

전반 추가 시간에 '막내' 엄지성이 동점골을
터트렸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이희균이 극적
인 버저비터골을 만들며 2-1 역전승을 만들었
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전용구장에서 기록된
광주의 첫 승리였다.

특히 광주의 미래인 엄지성과 이희균이 나란
히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만큼 더 의미 있는 승리가 됐다.

10경기 만에 전용구장 '첫승' 목표를 달성한
광주에는 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주어졌
다.

김호영 감독은 "인천-수원FC-성남FC로 이
어지는 3연전은 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
요한 경기다.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좋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원FC와의 경기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는 앞선 인천전을 통해 승점을 더한 것
은 물론 전력 운영의 폭을 넓혔다.

A매치 휴식을 보내며 에너지 재충전을 끝
낸 광주는 앞선 경기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데
거 투입해 손발을 맞췄다.

부상에서 벗어난 이한샘이 9년 만에 친정 북



지난 4일 인천과의 7라운드 홈경기에서 광주전용구장 첫승을 기록한 광주가 상승세를 이어 7일 수원FC를 상대로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인천전에서 이희균(왼쪽에서 4번째)의 극적인 버저비터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광주 선수들. <광주FC 제공>

귀전을 치렀고, 결승골을 넣은 이희균에게도
올 시즌 첫 경기였다.

마지막 교체 카드로 투입된 정현우에게도 이
날은 시즌 첫 출전날이었다. 여기에 새로운 외
국인 선수들도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세르비아 국가대표인 수비수 알렉스는 압도
적인 공중볼 싸움 실력은 물론 정확한 롱패스
를 바탕으로 빠르게 공수를 전환시키며, 빌드
업 실력도 보여줬다.

브라질 특급 헤이스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
으로 날카로운 키패스를 선보이면서 팀 공격을
주도했다.

엄원상과 김중우, 이찬동 등 시즌 초반 싸움
을 이끌어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지
만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
유다.

이번 경기는 2년 만에 펼쳐지는 맞대결이다.
수원FC가 올 시즌 승격에 성공하면서, 우승
팀 자격으로 먼저 K리그1에 복귀한 광주와 2
년만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더 뜨거운 무대에서 더 강해진 두 팀이 만나
게 된다.

광주는 지난 시즌 팀 창단 후 첫 파이널 A에
성공하면서 K리그1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수원FC도 K리그1 무대를 위해 박주호, 박
지수, 정동호, 양동현, 이영재, 김승준 등 국가
대표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또 지난 라운드 제주전에서 2-1로 시즌 첫 승
을 거두며 분위기도 올라갔다.

상승세를 탄 두 팀의 대결, 광주는 좋은 기억
을 앞세워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역대전적에서 수원FC에 12승 4무 5
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K리그1 맞대
결에서도 2승 1무 1패(2016시즌)를 기록하며
앞서 있다.

짜임새 있는 수비와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화
끈한 공격을 내세운 광주가 수원FC를 잡고 홈
에서 시즌 첫 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 데뷔골' 광주FC 엄지성 '베스트 11'

K리그1 7라운드

프로 데뷔골을 넣은 광주FC의 '특급 루키' 엄
지성이 생애 첫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엄지성은 6일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K리그
1 2021 7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서 바
로우-최영준(이상 전북), 윤빛가람(울산)과 어깨
를 나란히 했다.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첫 선발 출장
한 엄지성은 0-1로 뒤진 전반 추가시간에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장식했다. 이는 7경기 출전 만
에 기록된 프로 데뷔골이기도 했다.

'막내'의 반격에 힘을 얻은 광주는 후반 종료 직
전 타진 이희균의 '극장골'에 합입어 2-1 역전승
을 연출, 10경기 만에 광주 전용구장 첫 승을 신고
했다. 한편 7라운드 MVP는 1골 1도움의 활약을
선보인 전북 일류첸코에게 돌아갔다.



◇K리그1 7라운드 베스트11

▲FW : 일류첸코(전북) 라스(수원FC) ▲MF : 엄지성(광주) 바로우-최영준(이상 전북), 윤빛가람(울산) ▲DF : 최철순-최보경(이상 전북) 조유민(수원FC), 김수범(강원) ▲GK : 최영은(대구) ▲베스트 팀 : 전북 ▲베스트 매치 : 수원-전북 /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현수 '고척 승리의 기억' 소환한다

오늘 KIA-키움전 선발 등판
지난 가을 브루스 공백 때 첫 선발승
'강척' NC 경기 전 중요 변곡점
결과따라 초반 팀 분위기 좌우

KIA 타이거즈 김현수가 고척에서 팀의 명운을
쥐고 마운드에 오른다.

고척은 지난해 선발 투수로서 전환점이 됐던 곳
이다.

캠프 내내 마운드 구성을 고민했던 윌리엄스 감독
은 이민우 대신 김현수를 전면에 배치하며
2021시즌 선발진을 꾸렸다.

그리고 선발 경쟁에서 1차 승자가 된 김현수는
7일 잊지 못할 기억이 남아있는 고척에서 시즌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된다.

김현수의 운명의 순간은 지난해 10월 1일로 거
슬러 간다.

브루스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선발 기회를 얻
은 김현수가 고척에서 '난세의 영웅'이 됐다.

이날 키움을 상대로 선발 데뷔전을 치른 김현수
는 5이닝 무실점의 '깜짝 호투'를 펼치면서 3-1 승
리의 주역이 됐다.

김현수는 기대하지 않았던 호투로 선발 데뷔전
에서 승리투수가 됐고, 팀의 키움전 스윙을 완성
했다. 이 승리와 함께 김현수의 2020년 가을은 물
론 2021시즌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안치홍의 FA보상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던 김현수는 불펜 투수로 아쉬운 모습들을 잇
달아 노출하면서 군입대를 고려했었다. 하지만 키
움전에서 선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진류'로
계획이 수정됐다.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시즌 선발
경쟁에 뛰어든 김현수는 많은 이의 예상을 깨고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키움을 상대로 2021
시즌 '첫승' 사냥에 나서게 됐다.

김현수는 기본 좋은 기억을 살려 팀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

KIA는 지난해 김현수의 선발승과 함께 4연승
을 달리며 두산을 따돌리고 단독 5위로 올라섰
다. 이어 두산과의 맞대결이 예정됐던 만큼 KIA

의 5강에도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KIA는 김현수의 승리 기세를 잊지 못하
고 두산에 싸움이 3연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5강
싸움에서 탈락했었다.

KIA는 개막전에서 만난 두산을 상대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1시즌을 1-4 역전패로 열었다.

키움과 NC를 잇달아 만나게 되는 이번 주,
KIA는 중요한 선발진 테스트를 진행한다. 강팀들
과 일전이 이어지는 만큼 선발진의 성격에 따라
초반 흐름이 좌우된다.

김현수 개인은 물론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중요
한 등판이다. 8일 이여리가 선발 바통을 이어받게
된 만큼 프로데뷔전에 나서서 '막내'의 어깨를 가
볍게 해주기 위해 김현수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분위기 싸움을 해줘야 한다.

김현수는 캠프 내내 브루스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특급 과외 선생'을 자처한 브루스에게
많은 것을 묻고, 들으면서 마운드 밖에서도 선발
준비를 이어갔다. 선발 경쟁에서 생존한 김현수가
운명의 고척에서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김현수

웹툰 '익투'가 전하는 KIA 소식

구단 홈페이지·카카오 Iboon 등 게재
경기 분석·각종 에피소드 등 담아

'호랑이 군단'의 소식을 웹툰으로 만난다.

KIA타이거즈가 웹툰 '익투의 기아스토리
2021'을 통해 선수들, 경기, 구단 소식 등을 전한
다.

주간 경기 분석, 각종 에피소드, 이벤트 소식 등
이 담긴 '익투의 기아스토리 2021'은 지난해 29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구단 홈페이지와
앱, 카카오 Iboon, 다음스포츠 카툰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익수 스포츠 웹툰 작가가 그림과 글을 맡은
'익투의 기아스토리'는 지난해 9월 처음 선보여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KIA 설진규 마케팅팀장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
츠로 팬과 소통하기 위해 올 시즌에도 웹툰을 연
재한다"며 "웹툰을 통해 색다른 관점의 경기 분석
과 에피소드를 전달해 팬 여러분께 즐거움을 안겨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